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 차별잇수다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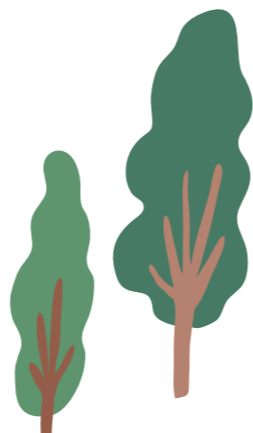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2019년 12월 6일 오후 3~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목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소개	3
2019 차별잇수다 경과보고	4
차별잇수다 현장 스케치	7
인권운동의 액션으로서의 말하기	23
차별잇수다 현장의 의미	30
2019 차별잇수다 돌아보기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토론문	
긴장과 연결이 있는 지역 운동의 현장, 차별잇수다	41
확장과 연대, 이주운동과 차별잇수다	44
장애차별과 복합차별, 장애인운동과 차별잇수다	52
대안서사의 힘, HIV/AIDS 감염인 인권운동과 차별잇수다	58
부록) 차별잇수다 매뉴얼과 툴킷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년 1월 5일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으로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하고자 노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반차별 운동을 펼쳐나가는 연대체입니다. 현재 131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별잇수다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잇수다’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움츠러들었던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 일상의 차별을 더 많이 소란스럽게 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지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평등의 감각을 서로 배우며 차별에 맞서는 힘을 키울 수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모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 2019 차별잇수다 경과보고

(I) 기획의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차별 경험을 이야기 하기

2017년 기승을 부리던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확인되던 해였다. 가짜 정보에 기대어 상대를 납작하게 ‘알아 가는’ 상황은 혐오와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 더 많은 평등의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일상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대항적 말하기를 할 장소가 절실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에 대하여 기획을 시작하였다.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누구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어떤 일(차별경험)인데?”라는 물음에 답변하기 쉽지 않다. 내가 겪은 일이 차별일까 싶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어 그렇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폭력’으로 와닿지 않기에 그 상황을 다시 짚어보며 “별일 아닐 수도 있지”, “나 때문일까”처럼 자신을 탓하면서 몸과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차별경험을 이야기 할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어떨까? 나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은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이 조

금씩 용기를 낼 수 있게 한다. 이야기를 오롯이 들을 안전한 장이 있다면 자신을 탓하기보다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해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피할 수도 있다. 차별경험을 안전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다면 마음 한 구석에 미루어 두었던 경험이 사회에 입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공간, 차별경험에 귀기울여주는 이들, 다른 이의 경험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과정은 평등의 감각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차별에 대해 수다(이야기)떨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이으며(잇다) 각각의 경험은 다르지만 차별경험의 연결성(잇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별잇수다’를 기획하게 되었다.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들으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사회에 요구할 것들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진행 과정

① 모의 차별잇수다

- 차제연과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들이 총 3회 모의 차별

잇수다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음.

② 차별잇수다 이끔이 워크숍

한 차례 진행한 이끔이 워크숍은 차별잇수다를 직접 경험한 후 다양한 영역에서 풀뿌리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이었음. 또 차제연 지역/소속단체/외부단체 간담회에서 차별잇수다를 소개하며 간담회와 차별잇수다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였음. 이후 차별잇수다를 신청한 단위에게 이끔이가 필요한지 묻고 ‘이끔이 파견’의 형태로 단체/지역/연대체 등을 방문하였음.

③ 오픈잇수다

- 단체에 속하지 않지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주제’가 있는 열린 형태의 차별잇수다를 기획.

- 7월 31일 가족, 11월 6일 일터 괴롭힘(직장갑질 119 공동진행)을 주제로 진행

④ 온라인 차별잇수다 (sooda.campaigns.kr) :

민주주의 커뮤니티 플랫폼 ‘빠띠’와의 협업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차별경험을 작성하고 다른 이의 경험에 공감을 표시하도록 제작하였음. 차별잇수다가 열리는 일정을 공유하였고 차제연을 통하지 않더라도 차별잇수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매뉴얼과 활동지를 게시하였

음. 온라인에서는 찬반 형태로 의견을 묻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한 사람의 차별 경험을 온전히 말하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온오프라인 공동기획 의도를 반영해 온라인 페이지를 홍보하지 못해 참여가 많지 않아 아쉬웠음.

(3) 참여 단체와 모임

- 온라인 차별잇수다: 105개의 차별 사례 게시
- 오프라인 차별잇수다: 총 39회 진행 (거리 캠페인 2회, 200인 이상 대규모 모임 1회, 30인 내외 규모 모임 6회, 10인 소규모 모임 30회)

- 04/23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 05/02 한국성폭력상담소
- 05/0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이꿈이 워크숍
- 05/09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 05/16 여성주의 모임 공방
- 05/28 인천 차제연 준비모임 세미나
- 06/01 서울퀴어문화축제 시민 참여 부스
- 06/08 경기수원지역반차별연대체
- 06/10 대구경북차제연 집행위
- 06/12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2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 06/19 한국한부모연합
- 06/21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06/29 대구퀴어문화축제 시민 참여 부스
- 07/19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07/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대회
- 07/2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07/31 오픈 차별잇수다 - 가족편
- 08/01 이화여대 변태소녀하늘을 날다
- 08/08 한국자립센터생활협의회
- 08/10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08/22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8/27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09/06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사 교육
- 09/10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09/18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09/21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09/2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생활인 참여
- 09/24 서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워크숍, 광주여성민우회(도담)
- 09/27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0/07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0/10 충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0/26 무지개행동 활동가 대회
- 11/02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11/06 오픈 차별잇수다 - 일터 괴롭힘편
- 11/09 부산퀴어문화축제
- 11/11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워크숍
- 11/22 유니브페미 간담회 및 차별잇수다
- 12/04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워크숍





2. 차별잇수다 현장스케치

프로그램 진행 순서

—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잇수다’를 시작하며

차별잇수다는 이꿈이, 활동지, 스티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꿈이는 한 모듬의 인원이 8명을 넘어가지 않도록 구성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간단히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후 <참여자의 약속>을 함께 낭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지에 ‘이름 또는 별칭’을 적는다.

— 작성활동 첫 번째 : 내가 겪은 차별 경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겪은 일>의 칸을 채운다. 이꿈이는 참여자들이 “나는 이러한 차별경험을 겪었어.” “그때 내 감정은 이랬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혹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 “이렇게 했던 이유 혹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꿈이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차별경험 사례들을 소개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차별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돌아가며 경험을 나눈다. <만약 그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어!>를 작성하도록 한다. 언어, 행동을 포함하여 가치관, 마음 돌보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 또한 참여자들이 작성을 마쳤다면 돌아가며 경험을 나눈다.

— 작성활동 두 번째 : 꿀팁,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일, 사회 변화를 위해!

서로의 경험을 나눈 후 활동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여 <꿀팁!>과 <옆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일>을 작성한다. 나누어준

스티커를 활용하여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활동지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자신의 활동지에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있는지 확인한 후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참여자들은 서로의 경험이 다르지만 비슷함을 느끼기도 하여 “나도 그랬는데”와 같이 이야기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마치며: 소감 나누기

활동지를 한 장 넘겨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이런게 기대된다!>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눈다.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말하기의 시작, 나 오늘 여기서 무슨 말 해야 돼?

“내가 겪은 차별?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을 적지?” 차별잇수다(이하 차별잇수다 혹은 잇수다)를 진행하는 이끔이가 차별잇수다의 기획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방법을 안내해도 차별 경험이 딱딱 나오기는 쉽지 않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경험을 나눠야 할지 감 잡기 어려워했다. 어떤 참여자는 시작 전에 웃으면서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말하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적을지 고민하기도 했다. 깊이 생각하며 워크지를 바라보면서 “꼭 글로 써야 하나

요? 그냥 말하면 안 되나요? 빨리 말하고 싶다”며 말하고 싶었던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세월이 한참 지난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부터 최근 겪은 사례까지 다양한 시기, 자신이 겪은 생애전반의 차별 경험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 경험을 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서술방식의 문제일까, 아직도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낯선 것일까? 워크지를 채우지 못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럴 땐 무리해서 지금 말하라고 하기보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것을 말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내 경험을 기억해 내는 데 다른 이의 경험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 모두가 다 차별경험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식을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차별 경험을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들어주길 하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불평등한 현실의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잇수다 현장에서도 차별 경험을 말하고, 수다 떨며 이야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이것 말한다고 누가 들어주길 하는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오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나 가능할 것 같네요.’ 등의 질문과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말하기 공간이 소수자

들에게 권리와 제도로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공분하기도 했다. 말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려질 공간이 없는 것, 참여자들은 잇수다로 함께 말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잇수다에서 만난 동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구나! 막혔던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야기에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겪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참가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차별들,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꼭 자신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본인 주변의 사례를 부당하거나 차별로 인식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적인 구조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사례를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어떤 참여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공감하거나 연대의 말을 전하지만, 그것만으로 변화를 만들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말하기 과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개념에 대한 모호함과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들을 난감해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차별 기준은 뭘까요. 크게 기준은 없는 거 같은데 막상 알고 나니 제 자신을 검열하게 되고 중압감이 느껴지네요.’ 라고 설명하며, 차별을 말한다는 것이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여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서로의 삶을 만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은 역시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의 확대가 중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어 말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을 때 감정을 살펴보기, 만약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신의 차별경험에 대해 글로 쓰고 공유한 뒤에는, 만약 차별 당했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싶은지 고민하여 써본다. 이 질문은 자연스레 당시 차별 경험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네!’ 뿌듯하기도 하다. 경험한 사건과 스스로의 거리를 다양하게 조정해보며 대안/대항적 행동을 궁리한다. 참여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함과 속상한 감정을 표현했고, 스스로 너무 기죽어 있거나 주눅 들어 있던 상황에 대해 아쉬워했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맞대응 하겠다는 참가자가 많았다. 물론 그때와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답한 참가자도 있었다. 가족 또는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터 경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지만, 지금의 자신이 그 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민을 더 해보거나 무엇이 좋을지 향후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당시 겪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단이 작용했을 터다. 차별 경험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조건과 현실을 고려하게 되고, 혹시라도 대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까지 생각하게 된다. 한 참가자는 차별 경험 후에 자신의 차별 경험을 말하고 대응했더라도 충족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했다. ‘차별 경험에 대해 향후에 대응하기는 했지만,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 상황이 너무 좋기도 하나, 좋지 않은 기억이기도 하다.’ 어쩌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다.

개인이 온전히 감내해야하는 차별 경험은 속상함과 분함, 답답함, 화, 분노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참여자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 경험이 우리가 변화해야할 목표이고 힘이란 것도 동시에 던져 준다.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위해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말하고 맞서는 행동들이 커지고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이 활동들 또한 커뮤니티의 힘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차별을 함께 고민하는 힘

마지막 순서는 작성한 워크지를 돌려 보며 꿀팁과 지지, 사회적 대안을 작성하는 시간이다. ‘차별’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과정을 2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잇수다의 매력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나?’ 하면서도 작성한 워크지를 흥미있게 바라 봤다. 활자화된 경험을 보면서 말할 때와 다른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웃고 떠들고 분노하며 공감했던 차별경험을 통해 왜 구조가 문제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작성하는 진지한 시간이 흐른다. 워크지가 한 바퀴 돌아 내 손안으로 돌아올 땐, 내 입을 떠난 차별경험이 모두의 손을 거쳐 공동의 문제,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위치가 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장 아니겠는가. 차별경험을 작성한 참여자는 동료들의 대안/대항적 행동 제안을 보면서 더 이상 차별의 원인과 해결의 몫이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 그러나 더 용기가 생긴 느낌이 아닐까 싶다. 타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대안/대항적 행동을 적어 내려가며 공동체의 동료로서, 차별경험을 들은 증인으로서 내 역할과 몫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사이다, 고구마, 연대하자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부터 우리 단체와 싸워보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워크지에 빼곡하다.

잇수다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며, 대항/대안 행동을 고민해 보니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에 지지할 수 있는 동료 등의 자원이 있는지,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후에 대응하기에 도움이 된다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대응을 제안하는 것엔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공감하다기 사회적 대책으로서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해 잇수다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해져야겠다는 과제가 남는다.

차별을 말하는 이야기가 1,000여 개 쌓이며 생긴 힘

잇수다는 누가 들어도 차별이라고 이해할 만한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나 알게 모르게 경험한 모욕감, 누구에게 시원하게 말하기 어려웠지만 말하고 싶은 속 답답한 차별경험을 꺼내놓고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위축되거나 외면하지 말고 차별을 말하는 공간과 관계가 만들어가는 것. 잇수다로 차별과 평등에 대해 토론해 나가는 소란을 만들고 싶었다. 혐오와 차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나고 말하고, 맞서왔다. 서로 다른 삶을 어떻게 말하고 만날 건지 준비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 그룹별로, 모임별로 각자 진행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정서는 이렇다. 서

로를 공감하는 눈빛, 말할 준비를 기다려주는 느린 시간, 손을 꼭 잡고 지지해주는 마음, 연대하는 분노, 토론 과정 속의 긴장감,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용기. 이런 정서적 역동 속에서 말하고 공감하고 행동한 만큼 평등을 꿈꾸는 이들의 힘은 커져왔다.





3. 인권운동의 액션으로서의 말하기

스피크 아웃을 비롯한 소수자 운동의 말하기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생존자의 ‘말하기’는 권력을 해체하는 힘이였다. 독재 정권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자,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약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온 인권침해를 폭로했으며 국가의 반성과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거대 권력 뿐 아니라 일상의 권력을 해체하는 ‘말하기’도 있었다. 여성 운동에서는 성폭력피해 말하기 (speak out)를 통해 사소한 일, 다들 감내하고 사는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던 폭력을 고발하며 일상과 제도를 바꿨다. 여성운동 뿐 아니라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등의 인권운동에서는 일상의 권력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때문에 ‘말하기 운동’은 인권 운동이기도 하다. 거대 권력부터 일상의 권력까지, 우리가 겪은 일과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왜곡된 통념이 사실이 되고 존재와 사건은 없는 것이 되고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작년 인권운동에서는 수많은 말하기가 있었다. 2018년 시작부터 방송 뉴스에서, 온라인 매체, 집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각계각층과 일상의 성폭력을 고발했다. 이것은 ‘나도 고발한다’라는 의미의 미투 운동,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에 응답하는 연쇄적인 말하기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2019년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의 재판 결과 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용기내

어 말하고 싸우는 만큼의 법제도와 수사 재판부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생존자들의 말하기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판단하도록 수사재판부의 변화와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2018년 지역의 퀴어문화축제는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 나아가 직접적인 폭력과 적극적인 방해 행위에 맞서야 했다. 미디어와 제도권의 힘있는 말들은 퀴어문화축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질지 않은 채 축제가 얼마나 ‘갈등’의 현상이었는지 주목하기 급급했으며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토론에 부쳤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이 방관하고 직접 조장하는 혐오 발화에 대항하는 ‘당사자들의 경험과 언어’를 모아 대항행동을 위한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를 올해 제작했다. 2019년 11월 1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악안이 발의하는 등 차별 조장은 끊이지 않았지만,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집단 진정을 넣는 등 평등을 향한 액션 역시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 외에도 모두 적을 수 없는 수많은 ‘말하기’가 있었다. 제도가 평등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동안, 그 자리를 혐오가 매우기도 했다. 2018년 ‘제주예멘난민’ 이슈를 통해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이슈가 되었다. 정부가 난민 중 ‘불법체류자’를 잡고 구금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인권을 유예하는 동안 선주민의 언어로 발화되는 혐오발화,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그 중에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남성이 선주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빼앗을 거라는 식의 혐오 발화가 나오기도 했다. 정체성을 칸칸이 구분하고 타자화 하는 시도들 속에서 약자들의 삶과 인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대를 모색할 것인지 질문이 제기 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반차별 운동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경험한 차별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지 고민이 심화되었다.

‘말하기’와 ‘듣기’는 연속적인 상호 작용이다. 소수자와 약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면 듣기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그 정도 말했으면 충분하다거나,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는 대신 침묵하라는 강요이며 정상성과 중심성의 기준에 맞춰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에서의 ‘말하기’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차별과 폭력이 지속되는 한 ‘말하기’라는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보고 겪은 것을 말하는 것에 따라야 할 틀은 없다. 변화의 몫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다. ‘듣기’는 움직이는 행위에 가깝다. 말하는 당사자의 경험의 맥락과 삶 속

에서 ‘말하기’를 이해하는 것, 당사자의 말을 진실에 대한 중요한 경험과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뒤따르는 적극적인 응답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에 응답해야하는 책무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 ‘말하기’의 의미는 충분하다. 더 많이 말하려면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에 있다. 평등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서로가 말하고 듣는 자리, 말하기만 하는 사람-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진 자리, 공명하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권력의 교차성을 어떻게 나의 삶의 문제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

차별이 교차하는 말하기 현장을 마련해온 과정

2013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서 시도했던 것

“사회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사회가 들으려는 대로 말하지 않기
사회가 배제하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기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연결하며 내딛는 연대의 걸음”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의 ‘을’들의 이어말하기 게시물)

2013년 서로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시도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말하기 기획단과 함께 ‘을’들의 이어말하기를 대한문 앞에서 진행했다.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된 이어말하기는 ‘숨겨지는 사람들의 커밍아웃’, ‘차별의 자리, 자리의 차별’ ‘냄새의 출처’, ‘일터에서 밀어내는 힘’, ‘보이지 않는 노동’, ‘희망이라는 터널’ 등 공통의 주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 여러 소수자들의 경험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각의 인권운동영역에서 일어나던 ‘말하기’가 한 데 모이는 행사라고 할 수 있었다. 2013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함께 만들었던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말하기를 이어가며 평등을 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의 차이와 차별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쫓겨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름이 다 다르지만 서로의 이름을 불러 줄 줄 압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활기를 불어넣을 줄 압니다.”

평등한 세상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런 식의 세상일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평등행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함께 행진하던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 몸과 몸이 만나서,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활기와 연결감, 때로는 긴장과 성찰을 어떻게 더 많은 현장과 일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은 더 많이 필요하다.

교차적 말하기, 말이 불러일으키는 공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7년 법무부가 성적 지향, 학력 등 ‘논란이 될 만한’ 일부 사유를 삭제하겠다는 시도에 대항해, 어떠한 사유의 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출발하여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130여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영역의 인권운동이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서로의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결점을 모색할 것인지, 반차별 감수성을 어떻게 함께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내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2019년 8월 24-25일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지역 차제연 워크숍에서는 지역 차제연 안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영역을 어떻게 넘나들며 운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이상 낫설지 않은 ‘교차성 운동’이 실제로 어떤 의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고민인 것이다.

2013년에 시도했던 ‘이어말하기’ 그리고 2019년의 ‘차별잇수다’는 각자의 경험을 모여 말함으로써 서로 교차되는 권력과 경험을 체감할 수 있는 ‘교차적 말하기’의 장으로 시도되었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차별잇수다는 단체나 모임 안에서 진행된 방식이 많다보니 이런 교차적 말하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에는 차별잇

수다에서 교차적 말하기를 시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교차적 말하기’라고 이름 붙인, 몸들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꺼내는 상호작용의 자리에서는 공명과 성찰이 일어난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소환하는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꺼내어 놓은 경험과 감정이 비슷하다는 것, 각자의 이야기가 상반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할 때 서로의 경험이 얽혀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미처 몰랐던 나의 약자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몰랐던 권력을 깨닫기도 한다. 차별구조를 명료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말하기의 공간을 체험함으로써 권력의 교차성과 인권 의제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느낄 수 있다. 복합적이고 교차되는 차별 구조를 체감하고 부당함과 불편함의 감정에 공감하고 관점이 확장되는 이 순간이 반차별 감수성이 높아지는 순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향해 말해야 하며 공명과 연대의 신호를 주고 받는 이 과정에 동료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4. 차별잇수다 현장의 의미

(1) 말할 수 있는 공간, 들을 준비가 된 공간

‘수다’를 통해서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으며 그 사이에서 공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들. 당사자로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를 줄 수 있다. 피해의 ‘수치심’, 자신이 무능해서 당했다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2018,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정작 평등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 언론, 공공기관 등 제도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폭력과 혐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지속적으로 허용해왔고 그럴수록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경험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했거나 자주 반복되는 상황일 경우에 이를 문제제기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꺼려질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를 주변에서 단순한 하소연이나 투덜거림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본인 스스로도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앞서서 이야기한 인권운동의 실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 차별잇수다 진행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살면서 자신의 차별 경험을 처음 이야기해본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로 오랫동안 알아왔거나 함께 활동해온 사람들끼리 차별잇수다를 진행할 때 그동안 해본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야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동료시민의 역할을 고민하기

한편으로 차별잇수다를 진행해나갈수록 말할 수 있는 공간만큼 ‘잘 들을 준비가 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론회나 발표회를 비롯해서 말하는 공간을 마련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데 집중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소수자의 경험을 들어보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도 듣

는 사람들이 거리를 둔 채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사례’로만 접근하는 경우 제대로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별잇수다의 경우 취지에 맞춰서 소그룹으로 진행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자리를 계속 바꿔보는 경험을 한다. 1차로 각자의 차별경험을 나눌 때, 2차로 워크지를 돌리면서 그 사람의 경험을 다시 읽어볼 때 ‘잘 듣는’ 청자의 역할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분노의 리액션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처음에 자신의 차별경험을 적어보기로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차별당한 적 없는 거 같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비슷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다. 단지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별잇수다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어떤 지지의 말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변인들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동료시민으로서 역할을 고민한다.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던져주는 문제의식에 대해 때로는 토론하고 서로가 잘 모르는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기도 한다. 사회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긴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동료시민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회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힘을 모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2)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서사의 힘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계속 기각해도 이런 이야기는 혐오표현을 부추긴다. 서사는 액션 혹은 반액션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데이터보다 이야기가 종종 임팩트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성적 논쟁과 확실한 데이터가 대중적 담론 안에서 변화를 만들거나 혐오적인 가정들을 무효화하기에 때로 충분치 않다. (2017, Council of Europe, <WE CAN!: Taking Action against Hate Speech through Counter and Alternative Narratives>)

서사의 힘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혐오를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행해왔다. 2018년에 난민 인권이 이슈화 되었을 때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양산되었고,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부정확한 정보와 선동을 담은 가짜뉴스는 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가짜뉴스가 담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대응 활동을 해왔지만, 가짜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몇 년간 축적되면 이 내용들은 대중 담론에서 서사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서사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인권운동에서

정확한 정보와 사실 전달 외에도 당사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다른 서사를 전달하려는 활동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대항 액션과 대안적인 서사를 발굴하기

차별잇수다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잘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진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사회는 소수자들의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다룰 때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놓은 ‘어떤’ 피해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기준에 공고하게 자리 잡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피해자다움’이 중첩되면서 더 좁은 자리, 더 한정된 목소리만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다움’을 거부하며 소수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며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규범과 틀을 부수기도 했다.

대항 서사와 대안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많은 팩트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해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삶의 맥락과 감정 및 욕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서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혐오세력 등의 이야기가) “가짜”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유머나 풍자를 활용해서 정서적 연결 지점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017, Council of Europe, <WE CAN!: Taking Action against Hate Speech through Counter and Alternative Narratives>)

차별잇수다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또한 운동 현장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대항 액션과 대안적 서사를 발굴하고 그 의미를 찾는 현장이기도 했다. 차별잇수다에서는 차별의 경험과 당시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혹은 하지 못했는지, 대응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실제 차별잇수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은 차별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기도 했고,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시도해보고 싶은 대응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해주었다.

— 나는 학교 다닐 때 가족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외국인인데 부모님 이름을 적는 칸이 한글로 세 글자만 쓸 수 있어서 당황했었고 깨알 같은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을 작성해야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장 마지막장에 종이를 놓았다.

⇒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이름을 크게, 칸을 넘어서 작성 했을 거야.

— “넌 결혼을 실패했잖아.” 내가 이혼했을 때 오빠의 말이 평생 남는다. 그 말에 난 할 말을 못했었다.

⇒ 그런데 지금이라면 말하고 싶다.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현재 오빠는 결혼 생활에 만족해?” 라고 되묻고 싶다. 너 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오빠하고 싸워서라도 바뀔 수 있는 인식을 바꿔보겠다.

— 저는 HIV 감염인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확진 받은지 얼마 안 되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HIV에 무지했던 당시 동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기독교인이라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했고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말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때로 돌아간다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녹취를 하고 내가 느끼는 부당함과 이러한 내용을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나는 싸우겠어.

—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 할 때 야간에 일했는데, 손님들 중에 반말하고 돈을 던지듯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분이 나빠서 나도 같이 반말하고 문제 생기면 경찰 부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이 와서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런 적도 있었다.

대안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차별잇수다 현장에서 차별을 당한 순간에 되돌려주고 싶은 말과 행동, 실제로 했던 말들과 대항 언어들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차별의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정리되는지는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운동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대안 서사를 만들어나가는 건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는 대안적 서사를 이야기해왔던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차별금지법제정이 유예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혐오세력이 점차 세력을 강화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우리는 밀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개인/집단에서 실천해온 대항적 말하기와 대안적 말하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가 커졌다. 법/제도화 투쟁을 넘어서 반차별운동의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우리가 차별을/피해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겪었고, 어떤 대응을 하고 싶었는데..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런 시도가 가능하겠다’는 방향으로, 차별잇수다 자체가 대안 서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의 적용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말하기가 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대항 실천들이 법이나 관련 제도와 만날 때 어떻게 더 힘을 더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3) 함께 말하기: 반차별 운동의 거점으로서 커뮤니티 중요성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차별의 경험이 넘쳐난다. 여

성이어서, 나이가 어려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비정규직이어서, 알바 노동자라서 등등의 이유로 일상에서 겪었던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토로하는 발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 지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항 액션을 모색해볼 수 있지만 차별잇수다는 모여서 함께 말할 때 생기는 의미에 주목했다. 각자의 경험이 개별적으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차별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 서로 공통되는 문제의식을 찾거나 교차하는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 두 차례 진행했던 오픈잇수다는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 등 가족을 둘러싼 차별경험과 일터에서의 차별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차별잇수다를 진행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가족과 노동이었고 그만큼 할 말이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그만큼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 차별경험을 나누기에 어려움이 많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며 알 수 있듯이 반차별 운동의 거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힘을 가질 때 개인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 방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런 커뮤니티의 집단적 힘이 쌓이고, 평등을 지향하는 동료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우리의 말하기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토론문

긴장과 연결이 있는 지역 운동의 현황, 차별잇수다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를 진행한 배경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상반기에 연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사업으로 아이다호에 맞춰 행진을 하긴 했지만, 아직 연대체 내부 단위들의 결속력은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성소수자 분야는 대학성소수자모임이 몇 있을 뿐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에서도 일부의 활동가만 연대체 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회의에 나오지 않는 각 모임에 속한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개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차별잇수다 진행 내용 및 분위기

충남에서 진행한 차별잇수다는 4개 대학성소수자모임과 대학 외 당사자들을 상대로 1번, 총 5번 진행하였습니다. 차별잇수

다를 해보고 느낀 것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경험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별경험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에서 반차별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별잇수다를 통해 새로 충남차제연에 들어오게 된 단위도 있습니다.

차별잇수다가 남긴 의미

충남에는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 장애인 등 당사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속한 분들도 차별경험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 대상으로도 차별잇수다를 진행했다면 반차별운동에 대한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진행한 차별잇수다를 정리해서 차제연내에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단위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또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계획과 고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아직 연대내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적인 결속과 활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차별잇수다를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을 가시화하는 '말하기 현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확장과 연대, 이주운동과 차별잇수다 - 들릴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는 우리의 목소리

강슬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

차별잇수다에 한 번 참여해보고 아쉽게도 저도 제가 있는 현장에서 차별잇수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초대 되었을 때 차별잇수다 방식은 아니었지만 제게 떠올랐던 활동과 목소리에 대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 라이프스토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80%가 이주노동자입니다. 그 안에는 결혼이주여성, 고용허가제,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체류자격으로 나누어 만나기보다 그들의 노동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던 필리핀공동체에서 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모아 그들이 노동인권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한 곳에서라도 나와 동료들의 노동이슈

에 목소리 낼 수 있는 활동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10회 교육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은 2회차에 있었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야기의 목적은 살아온 역사를 나누며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갈 동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에 대한 해석과 성찰이 앞으로를 나아가는 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야기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글로 써오신 분들도 계셨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각자의 인생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난민공동체의 성명서”

제 활동지역에는 2016년에 난민들이 직접 만든 난민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2018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명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담겨져 반복되는 내용도 있었고 문단마다 문장의 어투도 달랐습니다. 성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었고 번역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해결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공동체는 성명서를 통해

얻은 것도 있었지만 상처도 있었습니다. 5개월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은 갈등의 주체가 공동체 자신이었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도 공동체 자신이었다는 것을 공동체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명서는 큰 용기였습니다.

“세 번째, 네모사람들의 모임”

저는 제 이주배경으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센터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이주배경으로 인해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 ‘네모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라서 빈칸 네모의 모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 세 명이 모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 놀랐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께 빈칸에 어떤 이름을 넣으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는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 라이프스토리, 난민공동체 성명서, 네

모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배움과 성찰, 뿌듯함이 있었지만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2017년 노동인권활동가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센터로 데려오으로써 저의 노동상담이 늘었습니다. 노동법은 배웠지만 한국어로 다투기에 언어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은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가셨습니다. 노동법도 알고 한국어도 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를 맞설 힘이 약했습니다.

2018년 난민공동체의 성명서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것 65% 정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가 나왔을 때, 난민인 그들의 목소리를 알릴 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성명서를 지지하는 의미로 제가 속한 단체를 통해 성명서를 내보냈었는데, 속상하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권력을 가졌던 저희 단체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목소리라고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는 조심해야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해도 외칠 곳이 없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믿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음의 세상에서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2019년 네모사람들의 모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당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가 두 번째 모임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 모임 때 참석하셨던 두 분이 공교롭게도 한 분은 한국에서 자란 아프리카 대륙 출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란 한국 출신 분이었습니다. 이 둘은 ‘머리’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프리카 대륙 출신 분은 아프로(Afro) 머리를 갖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의 머리카락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란 한국 출신분은 긴 생머리를 갖고 있는데, 학교 친구들이 신기해서 자신의 머리를 자주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주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위 세 가지의 활동을 차별잇수다와 다시 연결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차별잇수다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잇수다라는 플랫폼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던 나로부터 벗어나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온전한 나로서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꾸미던 단어들이 없어지고 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차별잇수다 플랫폼의 운영

체제가 어떤 언어와 속도로 설계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그 속도 또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은 차별잇수다의 지렛대 역할을 통해 아직은 하나의 운영체제로 굴러가는 일상에서 내가 맞서야 하는 상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평소에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차별잇수다 플랫폼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힘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는 ‘이끄미’라는 존재와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장치를 둬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과거 자신과 지금 자신이 마주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모습들의 내가 나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별잇수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옆 사람과 위로와 지지 그리고 공감을 서로 나눕니다. 위로와 지지 그리고 공감을 얻을 때 나를 배제시킨 일상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은 차별잇수다에서 이야기가 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할까입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배경 청년 등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 속에 세세하게 쪼개지는 다른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주민 안에서 다른 피부색과 종교를 만납니다. 이주민 위에 장애인을 만나기도하고 장애인 옆에서 성소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겹쳐지고 포개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주민이고 장애인이고 성소수자이고 결국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는 생각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사실이 이주운동이 다른 운동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주운동과 다른 운동이 만나서 차별잇수다를 진행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서로 다른 단어로 불러왔을 뿐 결국 우리는 같고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다른 운동과의 연대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연대를 함으로써 운동의 힘들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더 큰 힘이 길러지면 연대는 다시 확장될 것입니다. 연대를 통해 서로의 존재함을 깨닫게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대항할 힘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고민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차별잇수다에 초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입니다.

일단 느리지만 천천히 저의 현장에서 꾸준히 차별잇수다 해보아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만나온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무조건 목소리를 내라고 요청했던 시간에

대해 반성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지,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언어도 섞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별잇수다 마지막 진행에 서로 메시지를 전하는 스티커가 글자 없이 그림으로 또는 촉감만으로도 서로의 지지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지지함으로써 내 안의 힘을 기르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차별잇수다가 두 시간의 짜여진 플랫폼이 아닌 이 사회 전체가 차별잇수다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배움이 경험뿐인 저의 목소리를 이야기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차별과 복합차별, 장애인운동과 차별잇수다

김순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운동에서 차별잇수다 참여의 의미

차별잇수다를 진행한 이래 참여현황을 보면 장애인운동 영역에서의 가장 많은 참여를 볼 수 있다. 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소속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사업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또 매년 200명~300명이 크게 모이는 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형태로 진행했다.

처음 차제연에서 차별잇수다를 한다고 했을 때 장애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운동 안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에서 만연하게 받아왔던 차별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법이고, 그 법을 기둥삼아 내가 서 있는 주변을 조금씩 바꿔왔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장애로 인해 겪는 차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엔 장애인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안에서 같이 풀어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장애인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곁을 지키며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애인운동 안에서도 차별과 혐오들은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이었다. 차별잇수다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요소라고 생각한다.

차별잇수다 진행방식과 함께 나누었던 차별사례

전장연에서는 대부분 대규모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 중 200여명이 함께했던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및 장애인 운동 안에서 나누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접근성 부재
-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하며 아무 화장실이나 가라고 내쫓으며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차별사례
- 지체 장애로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조건으로 인해 놀림을 당했던 차별사례
- 농성장에서 여성을 지목하여 ‘미스○○’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잔심부름을 시켰던 성 차별사례
-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받았던 차별사례
- 외모평가를 당했던 차별사례
- 가족 중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 당했던 가족구성에 있어서 겪었던 차별사례

- 장애를 비하하고 낮잡아 부르는 언어(병신, 병맛 등)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차별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구조적 차별사례
- 공원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쥐어주며 동정과 시혜의 존재로 보는 편견으로 인해 겪은 차별사례
- 옷가게에서 “아줌마 입을 옷은 없다”는 말을 들은 나이, 외모, 성별로 인한 차별사례
- 집회를 하며 겪었던 차별사례
- 장애인운동단체 내에서 장애남성이 비장애 여성에게만 커피를 타달라고 하는 문화 및 여성동료 외모 평가를 당했던 차별사례
- 취업 시 학력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차별 사례

모든 사례들을 기재하진 못했지만 함께 나누었던 차별 사례들을 보면 장애 정체성 하나만을 이유로 겪은 차별보다는 연령, 성, 외모, 학력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겪은 사례들이 많았다. 더불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이유로 겪은 차별사례도 많이 이야기 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를 보면 장애인만 사회에서 분리·격리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성의 범위에 들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내몰려져 시설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차별상황에서 바로 대항적 언어로 대응하기가 주로 언급되었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인권교육 시행, 시설폐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장애인 운동 안에서 장애차별과 함께 복합차별의 경험을 발견한다는 것

차별잇수다를 하며 많이 나왔던 반응이 “나는 차별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나의 경험보다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 할게요”였다. 막상 차별을 이야기 하고자 했을 때 구체적인 경험이 구조화 되어서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둠별 토론을 통해 하나, 둘 차별의 사례들을 들으며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했던 그 상황이 왜 차별이었는지, 어떤 지점이 차별로 이어졌는지를 깨달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면서 몇몇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당했던 차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행했던 차별의 행위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던 것 같다.

차별이 없다고 느껴왔던,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파악하고 깨달아가는 것도 차별잇수다의 하나의 과정이었다.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대표 중 한 분도 이 사회에 장애인도 동료시민으로서, 동료이웃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수십년 집안에서 살았던 세월을 차별이었다고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나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타자화 하고 있었던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차별은 사실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차별 '잇수다' (*서로를 잇는 의미도 있지만 차별이 여기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잇수다라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복합차별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자 모인 장애인운동 안에서의 차별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의 성 비율을 봤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반이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운동단체 안에서도 작동하는 권력구조 및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정상성을 기준으로 한 오지랖 넓은 질문들(애인이 있는지, 어려워하면 학생인지 또는 몇 살이냐고 묻는 것, 외모평가 등).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는 다양성들이 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사회의 정상성 기준에 의해 차별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다.

처음 차별상황에 처했을 때 한가지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차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도 봤지만 미처 다 포함하지 못한 여러 복합차별들이 존재한다. 장애와 성별, 학력, 지위, 성적지향, 신분, 연령, 빈곤 등 다양한 차별작동 기제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대항하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내면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해방이 되면 차별 없는 세상이 실현되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기준을 봐야한다. 이것은 우리안의 다양한 교차성을 계속 발견해내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더욱 교묘해지는 차별에 단단하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잇수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힘

마지막으로 차별에 대항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강하고, 결의에 찬 언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딱따르리는 차별에 대해 우리의 연결을 통해 함께 대항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것, 또 그런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의 차별잇수다를 진행했으면 하고, 하나의 운동 영역 안에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며, 우리 안의 교차성을 발견해내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한다.

대안서사의 힘, HIV/AIDS감염인인권운동과 차별잇수다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피해당사자로서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 1: 주체성의 획득

도움받는/을 객체의 이미지에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실제 이미지를 발현하는 과정과 기회로서의 차별잇수다: 과거 에이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망하던 시절부터 HIV/AIDS 감염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 ‘아픈 사람’, ‘슬픈 결말’ 등으로 생각되었음. 의과학의 발전으로 더 이상 HIV/AIDS가 죽음의 질병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과거의 이미지에 더해, 때로는 ‘힘든 사람’,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이미지까지 더해져 있기도 함. 이러한 이미지는 HIV/AIDS감염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나 기회를 제한하기도 함. 하지만 차별잇수다를 통해 내 차별경험에 내가 직접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가상(혹은 현실)의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HIV/AIDS감염인을 객체에서 주체로 끌어올리는 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 이는 차별잇수다가 참여자에게 ‘차별에 저항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으

로서의 대안서사 공유 시간과 가능성을 준다고 보여짐. 차별잇수다는 개개인의 서사가, 삶의 역사가 투쟁이 되는 과정을 선사함.

피해당사자로서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 2: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표현

HIV/AIDS감염인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넘어 고유한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차별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과정과 기회로서의 차별잇수다: HIV/AIDS감염인들이 실제로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사실이나, 이것이 HIV/AIDS감염인들의 인생 전부가 아님. 즐거움, 행복함 그리고 투쟁과 저항도 HIV/AIDS감염인들의 인생을 표현함. 마찬가지로 HIV/AIDS만으로 HIV/AIDS감염인들, 즉 ‘사람’을 설명할 수 없음. HIV/AIDS인권운동에서는 전략적으로 자주 HIV/AIDS 의제에만 집중하여 말하거나 저항하는데/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잇수다를 통해서는 HIV/AIDS 뿐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 사회적 위치, 환경과 요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인’들이 드러남. 실제로 커뮤니티알에서 진행한 차별잇수다에서 회원들이 차별경험을 공유할 때 비단 HIV/AIDS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나이가 어린 사람,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개인으로서의 차별경험을 얘기함.

HIV/AIDS 인권운동 현장에서의 관련한 활동 1: 책 『선물』

“내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HIV/AIDS 감염인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 제작된 책, ‘선물’을 만들 때 들었던 말. 보이지 않는 경험, 설명하기 힘든 경험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과정과, 개인의 삶-서사의 기록을 통한 저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잇수다와 비슷했음.

HIV/AIDS 인권운동 현장에서의 관련한 활동 2:

키싱에이즈살롱 시즌3

“HIV/AIDS보다 힘든 건 집값이 비싸다는 것”

키싱에이즈살롱 시즌3에서 한 패널이 말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말. HIV/AIDS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과 차별경험을 보여준다는 점이 차별잇수다와 비슷함.

그 결과로서의 공동/사회적 대응

· 고민들

정체성 집단의 삶/차별경험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차별경험의 역사를 어떻게 더 잘 가시화 하여 사회에 전달할 것인가?

사회에 전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떻게 모두의 몫으로 만들까?



부록

차별잇수다 매뉴얼과 툴킷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 잇수다

매뉴얼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잇수다〉를 제안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별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야기를 한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됩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거나 오히려 나를 탓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차별잇수다〉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움츠러들었던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 일상의 차별을 더 많이 소란스럽게 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지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평등의 감각을 서로 배우며 차별에 맞서는 힘을 키울 수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모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국 방방곳곳의 이야기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존재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모두의 삶을 위해 평등을 향한 소란을 시작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라인 차별잇수다(<https://sooda.govcraft.org/>)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와 함께 합니다.

알아두기

참여자의 약속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규정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 비슷한 이야기 속에선 공동의 경험을 찾아가고 다른 이야기 속에선 차이를 배워 갑니다.
-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이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 ‘이야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던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차별이 모두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토론합니다.

이꿈이의 역할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는 이꿈이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 프로그램 준비하기

- 가능하다면 사전에 이꿈이를 정합니다. 이꿈이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숙지한 후 진행합니다.
- 참여자들이 진행방식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하기

-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로의 경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고 경청하며, 함께 일상 속 실천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누군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참가자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사진으로 찍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메일로 공유해 주세요. 텍스트를 정리하여 온라인 차별잇수다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1. 준비물

- 활동지, 펜, 감정스티커
- 온라인 차별잇수다에 참여할 수 있는 핸드폰 또는 노트북

2. 구성 및 프로그램

소요 시간 2시간 이내

모둠 구성 최대 8명

(8명 이상인 경우에 모둠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모둠별로 이꿈이가 진행을 담당합니다)

도입 (15분)	<p>step 1 이꿈이가 참여자들에게 워크숍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공유합니다.</p> <p>step 2 참여자들과 세 가지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나는 ooo한 누구입니다')</p> <p>step 3 참여자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공유합니다.</p>
열기 (10분)	<p>참여자들이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갑자기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꿈이가 차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일상에서 경험한 차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입니다.</p>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매뉴얼의 <이것도 차별일까요?>의 사례나 온라인 차별잇수다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 누가 봐도 명확한 차별 사례보다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들을 얘기해주세요. ▶ 한 가지 사례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상력을 촉진해주세요. ▶ 활동지의 문장 형식에 맞춰 제시하면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공유할 수 있어요.
전개 1 차별 경험 공유하기 (30분)	<p>활동지에 각자 자신의 차별 경험을 작성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p> <p>※ 작성할 부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 한 일을 겪었는데 ~~ 한 감정을 느꼈어. ② 그때 나는 ~~ 했는데/~~ 하지 못했는데 ③ 왜냐면 ~~ 했기 때문이야.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1>에서는 차별을 경험했을 때 각자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든,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든 이후에 이어진 행동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을 당했다'는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못했는지를 짚으면서 경험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3개의 문장으로 차별의 경험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면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꿈이는 참여자들이 활동지의 해당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작성이 끝나면 모둠 안에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꿈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참여자들이 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p>

전개2 대항적 말하기 (30분)	<p>활동지 해당 칸에 그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대응방식을 적습니다.</p> <p>step 1 작성 후에 자신의 활동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p> <p>step 2 다른 사람의 활동지에 대응 방식을 제안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시도해본 꿀팁, 응원 메시지 혹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적습니다.</p> <p>step 3 다른 사람들이 활동지에 적어 준 메시지 중 인상적인 것을 각자 한 두 개 공유합니다.</p>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2>에서는 불편함/답답함/상처/의문을 남긴 경험에 대해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며 힘을 길러봅니다. '만약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응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법률적/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제도적 대응이 언제나 최선이거나 유일한 것만은 아니기에,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으며, 참여자가 했던 선택을 그대로 지지하고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이 할 수 있는 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다뤄봅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나누는 과정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이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대항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말하기 (10분)	<p>step 1 이꿈이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차별금지법과 이번 활동의 연관성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해주세요.</p> <p>step 2 활동지 겉면을 참고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소개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세요.</p>
마무리 (10분)	<p>오늘 나눈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고, 참여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 하는 시간입니다.</p> <p>step 1 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지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게 전송합니다.</p> <p>step 2 소감을 나누며 워크숍을 종료합니다.</p>

이것도 차별일까요?

사례 하나. 장애인이라서 더 무시하여 쫓아낸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찹쌀떡을 파는 분들을 보았어요. 여자 분과 그 분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지적장애인으로 보였어요. 그 남자분이 떡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옆에 술집 주인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 '손님들에게 방해된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술 마시고 길에서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고, 왜 이분들에게만 그러냐고 그 술집 주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지만 여전히 짹짹합니다. 손님들 핑계였지만 장애인이라서 더 무시하여 쫓아낸 것 같은데, 이거 차별 맞는 거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았을까요?

사례 둘. 계속 온라인 쇼핑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원래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옷가게에 가면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서 선택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가게 점원들의 시선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위아래로 쳐다보거나 불친절한 일은 다반사이고, 손님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직접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옷을 하게 됩니다. 계속 온라인 쇼핑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사례 셋.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런걸까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전라도보다 서울이 익숙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고 집주인을 만나 구두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도장만 찍으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이 돌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문득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출신지역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신지역이 전라도라고 계약이 취소된건 아닐지...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 넷. 어려보이는 여성이라서 일까요.

어떤 활동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상 대표로서 기자나 외부 인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상대방이 제가 어려보여서 그런지 은근슬쩍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때 저보다는 나이 있는 남성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저에게는 대표와 인터뷰 하고 싶는데 어디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례 다섯. 귀화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에게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상 중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국어를 어쩔 이리 잘하는지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런 질문들을 들어야 할까요?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제 삶의 궤적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대항적 말하기와 차별금지법

개개인이 겪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법, 제도, 관습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둔 채, 차별의 사회구조를 인식하며 다른 말과 다른 실천을 상상하고 공유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진다면, 다른 조건에 놓여있다면,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하고 상상해보는 것은 다른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조금씩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고, 대항적인 방식을 고민해보고 서로 연결해보는 이 과정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동시에,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지 '피해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보면서 사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일상에서 행동할 때 단단해 보이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대항적 말하기의 실천이 다양한 현장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년 1월 5일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연대체입니다. 전국의 126개의 다양한 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퍼낸날 2019년 4월 16일

퍼낸곳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https://twitter.com/equalact2017)

후원계좌 1006-201-507617 (우리은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 잇수다

있다!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
평등을 향해 갈 동료들 만들고 싶다.

있다! 누군가의 말하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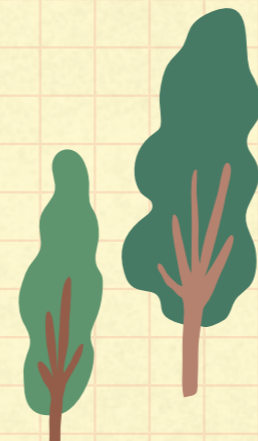
수다! 차별에 맞서는
이야기와 행동을 만들자.

7월 31일 '가족'을 주제로 시작해서, 8, 9, 10월 매 회 다른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차별잇수다가 열립니다. 신청은 bit.ly/오픈차별잇수다

내가 겪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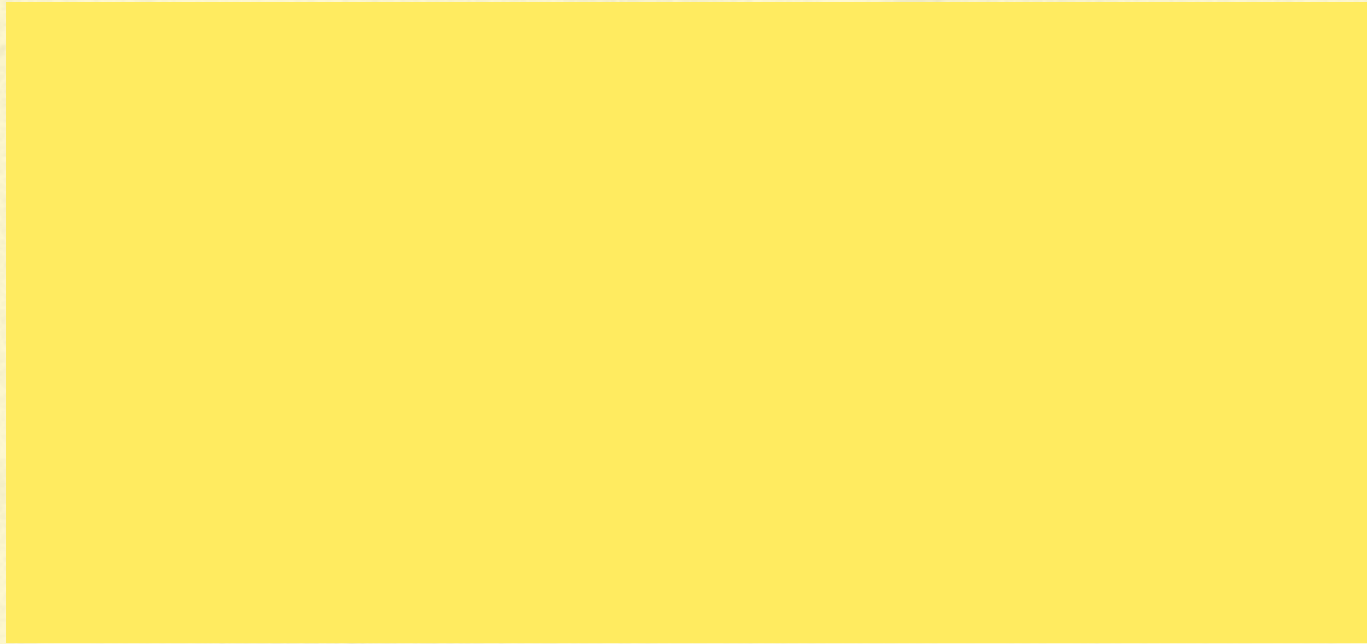


만약 그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어!



지지, 응원, 위로, 연대, 함께 ...

꿀팁! 



옆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일
(인식, 법, 제도 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렇게 기대된다!

No. _____

활동참여 방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시고 널리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 <https://equalityact.kr>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ityact2017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CMS 가입 <https://equalityact.kr/cms/>
후원 1006-201-507617(우리은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equalityact2017@gmail.com
 - 10월 19일(토)에 열리는 평등행진에 참여해 주세요.

발행일 2019년 12월 6일

발행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글쓴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 사월, 신아, 종걸, 진경, 진희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equalact.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